

새싹대마(*Cannabis sativa* L.)의 식품공전 등재를 위한 기반 연구

송영재¹, 소주련², 강사행², 김동구², 박재영³, 남민우³, 홍창희³,
박정향², 고세웅¹, 김동근², 김태현², 명제훈², 진종식^{2,3*}

¹전북대학교 약학과, ²전북대학교 한약자원학과, ³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하여 대마 의약품이 허용되었으나, 현행법 상 관련 의약품의 국내 생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대마와 관련하여 식의약소재로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은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종자 뿐이다. 결국, 대마의 사용이 합법화 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에 비해 식의약산업에 있어서의 활용 범위가 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싹을 틔워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전 연구를 통해 재배조건에 따른 성분의 변화, 세포독성 등이 검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새싹대마의 대량생산연구 및 안전성·독성 검토, 생리활성 연구를 계획·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대마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PJ0171202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